

중격 림파절(N2) 전이가 있는 폐암환자의 슬후 성적

전남의대 흉부외과
장원채, 김주홍, 안병희, 김상형.

전남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중격 림파절 전이(N2)가 있는 폐암에서 폐절제술 및 림파절 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 중 의무기록이 충실하고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34례에 대해 슬후 성적을 분석,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.

1. 환자의 연령은 39세에서 71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56.56세 였고 남녀의 비는 30:4이었다.
2. 슬전 증상은 1개에서 5개까지, 평균 2.1개 존재하였으며 빈도는 기침 및 객담이 27례(79.4%)로 가장 많았고 그외에 체중감소 14례(41.2%), 각혈 12례(35.3%), 흉통 8례(23.5%), 호흡곤란 5례(14.7%)등의 순이었다.
3. 슬전 환자의 임상분류는 Stage I 13례 (T1N0M0 1례, T2N0M0 12례), Stage II 9례 (T2N1M0 9례), Stage IIIA 12례 (T3N0M0 4례, T1N2M0 1례, T2N2M0 5례, T3N2M0 2례)였으며 슬전 N2를 진단한 경우는 8례 (23.5%) 였다.
4. 슬후 환자의 병리학적 TNM 분류는 T2N2M0 22례 (64.7%), T3N2M0 12례 (35.3%)였고, 조직학적으로 Squamous cell ca. 26례 (76.5%)로 가장 많았고 Adenoca. 4례 (11.8%), Adenosquamous cell ca. 1례(3.0%), Large cell ca. 2례(5.9%), Malignant sarcoma 1례 (3.0%) 였다.
5. 우측 폐암이 14례(41.2%), 좌측 폐암은 20례(58.8%)였으며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21례(61.8%),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13례 (38.2%) 였고 슬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11례, 화학적 요법을 시행한 경우는 1례, 방사선치료 및 화학적 요법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5례이었다.
6. 1개의 중격 림파절에 전이를 보인 례는 19례(55.9%)이었고, 2개이상의 중격 림파절에 전이를 보인 례는 14례(41.2%)이었다. 좌측 폐암의 경우 대동맥 림파절군 (대동맥하 림파절, 대동맥측면 림파절) 전이가 53.3%를 차지 가장 많았고, 우측 폐암의 경우 상부 중격 림파절군 (상중격 상부 림파절, 기관측면 림파절, 전기관 림파절, 기관기관지 림파절) 전이가 62.5%로 가장 많았다.
7. 슬후 합병증은 6례(17.7%)에서 발생하였으며 hoarseness 가 2례, chylothorax, arrhythmia, radiation pneumonitis, postpneumonectomy empyema가 각각 1례이었다.
8. 수술 중 사망례는 없었으며 병원 사망률은 3.0%(1/43)이었고 슬후 추적 기간은 1개월에서 75개월까지 였고 평균 19.43±20.22 개월이었다. 추적 관찰 기간 중 사망한 례는 10례 (29.4%)였으며 사망한 례의 생존 일수는 1개월에서 17개월까지 였고 평균 8.20±4.38 개월이었다.